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⑩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



▶ **한줄 요약**
잠깐 떨어져 바라보면 진리가 보인다.

스스로 한계 제거, 드러나는 '眞我'



라마나 마하리쉬 (Ramana Maharishi)은…

1879년 남인도 출생. 열일곱 살의 어느 날,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다가, 육체가 아닌 자기의 참 존재가 실재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내면에서 울리는 '나'의 소리를 들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성산으로 알려진 아루나찰라산으로 가서 합일의 희열 속에서 깊은 삼매에 들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단지 그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풀리고 형언할 수 없는 축복에 휩싸이는 경험을 하였다. 그를 만나면서 크게 변화된 영국인 폴 브런턴이 〈인도의 신비를 찾아서〉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1950년 열반에 들 때까지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실재가 있으며, 그 실재로서의 '진아'를 사는 법을 가리켜 보였다.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으로는 〈있는 그대로〉, 〈그대 자신을 알라〉, 〈마하르쉬의 복된 가르침〉, 〈불멸의 의식〉 등이 있다.



진리를 깨닫는 두가지 방법
헌신·자아탐구서 성찰 추천
영화보되 영화 인지와 같아
세속유혹 여의는 깨달음 길

음표 아닌 오선지에 머무는 법

열두 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맞게 된 한 소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아버지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걸까?'

주위의 한 어른에게 그런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해 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거야."

소년은 그때 처음으로 육체는 그 인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는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삶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의문부호가 품어지게 된다.

열일곱살 되던 해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그 공포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 그래, 죽음이 왔다.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죽음의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생각하자, 정말로 팔다리가 뻣뻣해졌다.

'그래, 이 육체는 죽었다. 이 육체는 화장터에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 재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육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것일까? 이 육체가 과연 나일까?'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 느낌에 잠겨 있고 나서 얼마 후, 육체와는 별개인 강력한 존재의 힘이 느껴졌다. 그는 내면에서 울리는 '나'의 소리를 느끼고는, '진정한 나'는 육체를 초월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이후 계속해서 '진아(참나)'는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생각들은 악보의 음표들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갔지만, 이 '진아'는 마치 악보의 오선처럼 계속 이어졌다. 육체가 말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이 '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체험 이전에 나는 나의 '진아'를 전혀 알지 못했다."

존재의 참맛을 알아버린 이 젊은이에게는, 외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헛껍데기 같아서 너무나 싱거워졌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데도 관심이 없어졌고, 학교 공부도 시시해졌다. 사원에 가서 여러 신상들 앞에 몇 시간이고 그냥 서 있는 일이 많아졌다. 일종의 열병 같은 것이었지만, 아주 즐거운 열병이었다. 그리고 이런 열병은 젊은이로 하여금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는 길에서 이탈하여 '영원한 출가'를 감행하게 한다. 아루나찰라, 성스러운 산으로 간 그는 머리를 깎고 순례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는 곧바로 삼매에 든다.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이었고, 모기, 파리, 지네, 개미 등 온갖 해충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벌레들이 허벅지와 발을 물어뜯어 상처가 나고 피가 났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삼매에 든 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여러 날이 흘러갔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지하실 입구를 지나가다가, 개구쟁이들이 지하실 안을 들여다보면서 안쪽으로 자꾸 돌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된다. 지하실 안으로 들어가보니, 캄캄한 가운데 웬 수행자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그는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와서 그의 몸을 흔들어댔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깊은 삼매에 든 그의 몸을 그들이 딴곳으로 옮기려고 안아 들자, 그의 몸 여기저기에서 피와 고름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깊은 삼매에 들 수 있단 말인가? 전설에나 나오는 요기 행자 같다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동네방네 소문을 냈고,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침묵의 가르침

그는 깊은 삼매에 들어 밤인지 낮인지도 거의 알지 못했다. 간혹 눈을 뜨면 어떤 때는 밝았고 어떤 때는 어두웠다. 그가 눈을 뜨면, 사람들은 우유나 죽, 음료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입을 벌려서 떠넣어 주었다. 그것이 그가 먹은 음식의 전부였다. 훗날 라마나 마하라쉬는 '육체가 움직이면 음식이 필요해지고,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이 필요하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잠을 잘 필요가 없으며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소량의 음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달이 지난 후부터는, 처음 삼매에 들었던 지하실을 떠나 사원 경내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그의 삼매는 계속되었다.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그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문제를 가지고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좀처럼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서 그윽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에 싸여, 얽혀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그의 발밑에 엎드곤 하였다.

영적으로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는 침묵을 통해서 법을 전했지만,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쓰거나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다.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는 이미 진아의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전하는 법문은 까비르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라고 읊었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나'라는 생각이 망상이라는 것을 깨우치기만 하면, 그 즉시 실체의 자리에 이미 서 있으며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가 아니라 스크린 자체에 머물라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꿈을 꾸고 있으나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났다가 사라져가지만, 나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영화와 같다.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화면들은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져 버린다.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다. 스크린은 스크린으로서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 자신의 진아로서 남는다. 그대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스크린 위에 나타났던 화면들이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버리듯이, 그 세 가지 상태들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 위에는 때로 수많은 파도가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큰 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어느 경우에나 그냥 거기에 남아 있다. 스크린은 결코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어떤 화면도 스크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깨어 있는 동안, 꿈꾸는 동안, 잠자는 동안,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의 진아로서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화 속 드라마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조건화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헌신의 길과 자아탐구의 길

라마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아탐구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의 길'이다. 헌신의 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자, 즉 신에게 완전히 맡겨 버리고, 에고와는 전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길이다. 기차를 타면 기차가 모든 짐을 다 운반해 준다. 기차에 탄 채로 짐을 머리에 이거나 가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왜 짐을 기차에 내려놓고 편히 쉬지 못하는가? 기차에 승차한 사람이 짐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듯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의 커다란 힘에게 모든 것을 내맡겨 버리면, 만사가 스스로 진행될 것이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행위자라는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일 뿐, 인생사 모든 것을 '더 큰 힘'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 큰 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맡기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면 나프탈린을 오래 두면 다 날아가 버리듯이, 에고의 마음은 증발해 버리고 그 큰 힘만이 남게 될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이원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진아만이 현존하게 될 것이다.

라마나 마하리쉬는 '더 큰 힘(신)'을 상정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헌신의 길'보다는, '자아탐구의 길'을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길로서 가리켜 보였다.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나'의 근원을 찾아 그 근원에 머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경험담과 그 길이 있게 될 것이다.

개체적인 자아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이 거짓되게 만들어낸 것이고, '진정한 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스스로를 한계짓는 경향을 가진 마음이 사라졌을 때만이, 진아는 온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온갖 희로애락이 상연되는 화면이 사라지고 하얀 스크린만 남는 상태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깨달은 사람은 스크린과 화면들이 모두 진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깨달은 사람은 화면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 화면들이 스크린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속지 않을 뿐이다.

〈작가〉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지장참회도량
도솔산 참당암
참당선원
선원장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전화 063)563-3440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주불교연합회
회 원 일 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노블레스웨딩홀 별관 4층
전화 063)714-3309 팩스 063)276-3555
사무국장 010-7382-3309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전북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석가여래행적송
주 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대한불교천태종
대전 광 수 사
주 지 정장호 합장
신도회장 박병호
신도대중 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63번길 26
전화 042)823-0332~4
팩스 042)823-6779